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은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같이 살듯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보낸 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생명시하며, 그와 일체 되어 삼위를 모시고 같이 사는 삶이다.
2.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자는 타인이요, 남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느니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창조 목적의 사랑은 혼과 영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과 심정이 일체 된 신령한 육의 사랑이니라.
4. 육에 속해 살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느니라.
5. 신령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신령한 육과 혼과 영이 되어 창조 목적의 신령한 사랑을 이루게 되느니라.